

월드컵 TV 해설 3인 3색 입담대결

시청률도 지상파 3사 각축 모바일 등 장외경쟁도 후끈

지상파 3사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에 사활을 걸고 각각 개성 뚜렷한 해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채널별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들을 해설위원으로 내세운 덕분에 축구 팬들은 “어딜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한국이 스웨덴과의 첫 경기를 치른 가운데 20일을 기준으로 초반 시청률 성적을 보면 3사가 각축을 벌이는 모양새다.

월드컵 개막전이었던 14일 러시아-사우디 전에서는 KBS 2TV가 3.3%(이하 닐슨코리아 기준)로 가장 높았고 MBC TV 2.9%, SBS TV 2.7% 순이었다.

16일 페루-덴마크 전 중계는 SBS TV가 2.8%로 MBC TV 2.7%를 근소하게 앞섰고 KBS 2TV는 1.4%를 기록했다. 같은 날 열린 독일-멕시코 경기 중계는 SBS TV가 6.6%로 가장 앞섰고 MBC TV 3.4%, KBS 2TV 2.5%였다.

지난 18일 한국-스웨덴전은 KBS 2TV가 17.0%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SBS TV가 12.5%, MBC TV가 11.4%로 뒤를 이었다.

해설 측면에서는 방송사마다 ‘스타 해설’을 내세워 힘을 잔뜩 준 만큼 전반적으로 발언이 많고 과열된 느낌을 준다. 이를 두고 최근에는 시청자들도 축구 지식이 상당한 상태에서 과한 해설이 경기 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사별로 KBS 2TV는 가장 정통 해설에 가깝고 무난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영표 해설위원과 이광용 캐스터의 합이 좋아 밸런스가 가장 낫고, 이영표 특유의 전문적인 해설이 축구 팬들의 오랜 지지를 얻고 있다. 개막전에서는 가장 최근까지 필드에서 뛰던 이근호가 합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지난 한국-스웨덴전에서 조현우 골키퍼가 아쉬울만한 순간에 선방하거나 우리가 스웨덴의 골을 허용하는 등 중요 장면에서도 차분한 해설 기조를 잃지 않았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복기를 통해 우리 수비진 중 어디가 뚫렸는지 짚는 것도 잊지 않았고, 경기 전후에는 스웨덴의 전술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MBC TV는 3사 중 가장 역동적인 해설이 2049(20~49세)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처음 한국전에서도 안정환 해설위원과 김정근 캐



KBS 2 이영표 해박함



MBC 안정환 역동적



SBS 박지성 친근감

스터는 유머까지 곁들인 생생한 해설을 선보여 축구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골키퍼 조현우가 선방하자 “몸매는 다르지만 또 다른 이운재가 나올 것 같다”고 평하는 식이다.

특히 안정환 해설위원은 기존 예능에서도 자주 대중과 만난 만큼 마치 호프집에서 ‘축구 광장하 잘 아는 아저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친숙한 인상을 준다. 거기에 해설 지도자 자격증까지 겸비, 전문성도 놓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순간에는 파울을 독려하거나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주문하고, 패배한 후에는 “중동에만 집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북유럽 집대가 좀 많이 나온다”고 지적하는 등 특유의 솔직한 입담도 과시했다.

SBS TV는 이번에 박지성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배성재 캐스터와 처음 호흡을 맞춘 박지성 해설위원은 개막전에서는 부자연스러운 발성과 말끝을 늘어뜨리는 화법, 부족한 순발력, 중복되는 단어 사용 등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으나 한국-스웨덴전에서는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기본적인 목소리 톤이 높아 호불호는 갈리는 편이다.

그럼에도 박지성 해설위원은 선수들의 전략을 현장감 있게 해설해주고, 대중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선수들의

심리를 예상하거나 분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상대가 골 점유율이 높다고 동료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현실적인 조언도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외국에서 뛰 경험 많은 만큼 외국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제가 과거 경기에서 만난 선수”는 식의 해설이 축구 팬들로부터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들었다.

3사는 모바일이나 라디오 등 장외에서도 치열한 경쟁 중이다.

특히 MBC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BJ 감스트를 영입, 감스트가 인터넷 중계를 통해 ‘날 것’ 그대로의 해설과 ‘편파 중계’ 등을 선보여 독일-멕시코전만 15만명이 시청하는 등 화제 물이에 성공했다.

KBS도 모바일 생중계 ‘마이 월드컵’을 통해 최은경·서기철 아나운서와 걸그룹 프리스틴을 내세워 대중성을 강화했다.

SBS는 러브FM(103.5MHz)을 통해 정치자들과 함께 거리 응원전을 펼치고, 연예계 스포츠 마니아들을 초대해 공연하는 등 들을 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

코미디언 선·후배 애도 물결

개그맨 김태호(본명 김광현)가 어이없는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1세.

19일 방송코미디언협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자선골프대회에 참석차 군산을 찾았으며, 같은 날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김태호는 1991년 KBS 8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코미디세상만사’, ‘6시내고향’, ‘사랑의가족’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행사 전문 MC로 활동해왔다.

그렇던 그가 ‘술값 10만원’ 때문에 참변을 당하자 코미디언계에서도 안타까움을 동반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께 발생한 군산 주점 방화 사건은 범인이 주점 주인과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다 횡재에 주점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벌어졌다. 주인이 술값 20만원을 요구하자 “왜 10만원인데 20만원을 요구하느냐”며 범인이 방화에 김태호를 비롯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이용수 등 선배 코미디언부터 심진화 등 후배들까지 SNS를 통해 고인을 애도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4층 귀빈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딸이 있다. /연합뉴스



‘여성·장애인 비하’ 엄용수 “죄송합니다”

개그맨 엄용수(65)가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여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해 논란이 일던 데 대해 20일 직접 사과했다.

엄용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시청자 여러분께 지난 14일 방송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 자신이 가진 장애와 실패의 경험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오늘이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성은 없었고 제 강의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나온 말 실수였다. 적절치 못했음을 다시 한 번 사과,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엄용수는 앞서 지난 14일 ‘아침마당’에 출연해 출연료와 상관없이 일한다는 의미로 “고추 축제하면 고추로 (출연료를) 받고, 굴비 아가씨 축제를 하면 아가씨로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과거 교통사고로 엄지발가락을 잃어 6급 장애인이 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항공료 30% 할인을 받아 기만하 얹아서 1년에 1천만원을 번다”고 말해 시청자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먼저 사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아 파도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인형의 집(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00 SBS 12 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10 세상의 모든 다큐	3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2	20 드래곤에그 5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뉴스브리핑
3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5 판다랑 45 꾸러기 식사교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15 문화사색 (재)	00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15 토이캡 2 30 주간연예수첩	05 할머니네 동강아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월드컵 투데이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 (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프리뷰쇼 미러볼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25 내일도 맑음	30 너도 인간이니? (1~10회 돌아보기)	55 할머니네 동강아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0 KBS 뉴스라인 4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예선 C조, 프랑스·페루)	10 해피투게더 1~2부	1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페루)	10 김여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55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MBC 다큐프리임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스테이크 영양술법과 토마토 달걀국>
05:30 통일의 길 <오늘도 달린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원색의 유혹 서아프리카 4부 생명의 젓줄 감비아강>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07:00 융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장수의 비밀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다큐 시선
08:30 미니특공대 X	14:30 로보카 폴리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라 곰 스페셜
09:00 두다다콩	15:15 파프리카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융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콩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EBS 뉴스
	19:5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미안마 축제가 빠지다 4부 또 다른 세상 친구>
	21:30 한국기행 <심심산골, 심심해서 좋아 4부 우리들의 비밀기지>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1일 (음 4월 8일 甲申)
<p>子 36년생 부딪들은 처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 48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60년생 주의하자. 72년생 의심스럽다면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만이 손실을 최소화 한다. 84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행운의 숫자 : 06, 34</p> <p>丑 37년생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관망은 모양새 이니라. 49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이다. 61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게 될 수다. 73년생 말쑥한 입을 알라. 85년생 조건을 낱알이 고려한다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59</p> <p>寅 38년생 흙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50년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2년생 종합적인 진단이 관건이다. 74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 86년생 판도를 설계만 본다면 많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게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7, 39</p> <p>卯 39년생 국면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51년생 시세에 적응하다보면 혼란이 올 수 있다. 63년생 제 몫을 확실히 해낼 것이다. 75년생 배려하다보면 얻는 바가 많다. 87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행운의 숫자 : 04, 78</p> <p>辰 40년생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꼭 이루리라. 52년생 실사구시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4년생 임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집착하지 말라. 76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8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11, 51</p> <p>巳 41년생 묵묵히 진행해 나가지만 하면 궁극적으로 성사되리라. 53년생 처지에 맞아야만 하느니라. 65년생 복합적인 형태이다. 77년생 상태를 존중해 준다면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8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5, 11</p>	<p>午 42년생 집요하고 치열하게 임해야 이루어질 것이니라. 54년생 절대대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66년생 실제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잘 하자. 78년생 원상회복의 기쁨이 크다. 90년생 점점 관심을 끄는 일이 생기기라. 행운의 숫자 : 88, 10</p> <p>未 43년생 소중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55년생 내실을 기하라. 67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79년생 기본적인 것이 튼튼해야 전망이 밝아진다. 91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 97, 07</p> <p>申 44년생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56년생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68년생 확실한 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0년생 약속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92년생 한계면에 몰리겠다. 행운의 숫자 : 12, 95</p> <p>酉 45년생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게 된다. 57년생 안정을 구가하는 평안함이 보인다. 69년생 궁급증이 명쾌하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알고 있어야 피해갈 수 있다. 93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에 한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7, 37</p> <p>戌 34년생 점검해보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46년생 방심하지 말라. 58년생 예감하여 왔던 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70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82년생 이대로라면 근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9, 13</p> <p>亥 35년생 경험에 비취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47년생 초심을 잃지 말라. 59년생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71년생 여러 가지 동향을 고려해서 대응할 일이다. 83년생 현상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02, 6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열선” ☎010-9790-8237